

그리스의 大學教育 제도와 아테네 大學校

劉 載 源
(漢陽大 文化人類學科)

1. 그리스 大學教育 制度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발상지이다. 흔히 그리스는 세번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해진다. 우선 그리스는 찬란한 고대 문명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서양의 철학과 문학 심지어 과학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가나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같은 대문호에게 귀착됨을 알 수 있다. 또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는 이러한 문화적 정복과 군사적 정복에 힘입어 언어를 통하여 또 한번 세계를 정복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부 이후 그리스어는 그리스 본토에서는 물론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방, 멀리는 인도와의 접경 지방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심지어 그리스의 정복자였던 로마인들조차 그리스어를 배워야 했다. 그러나 고대 문명이 쇠퇴한 이후 그리스는 세계사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서양이 새로운 세계의 강자로 부상하던 시기인 15세기 이후의 근대사에서 그리스는 오스만 터키의 속주로서 수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 결과 그리스는 유럽의 근대화에서 제외되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뒤떨어진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근

대 유럽 문명의 대표적 산물 중의 하나인 대학의 출현도 자연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늦어지게 되었다.

1837년에 그리스 최초의 근대 대학인 아테네 대학이 설립된 이후, 1925년에는 테살로니키대학, 1964년에는 요아니나대학과 파트라대학, 1973년에는 크리티대학, 1977년에는 트라키스대학,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에게오대학, 이오니오대학이 세워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아직은 학생을 뽑지 않고 있지만 이미 대학의 설립을 마친 테살리아대학 역시 곧 문을 열 예정이다. 그리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의 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새로운 대학을 세우려면 특별 입법을 거쳐 국회에서 논의된 후 인준을 거쳐야만 한다. 인상적인 점은 처음에는 아테네대학이 거의 100년간을 유일한 대학으로 독보적 권위를 누려 왔으며 1925년에야 두번째 대학이 세워지는 아주 완만한 발전을 해 오다가 1960년대 이후 대학의 설립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리스가 1960년대 이후, 특히 1974년의 민주주의의 회복 이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데 대한 당연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은 이들 대학이 그리스의 전 지역에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는 물론 대도시의 인구 집중율이 70%가 넘는 그리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 정부가 국토의 고른 발전을 염두에 두고 고등교육 기관의 철저한 지역적 안배라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인들의 유난히 강한 향토에 때문이기도 하다. 서로 강한 경쟁심을 느끼는 두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자신들의 지역에 대학을 갖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한 단과대학은 A지역, 또 다른 단과대학은 B지역에 세울 수밖에 없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크레타 섬에서 ‘하니아’와 ‘레티모스’, ‘이락클리온’의 세 도시는 서로 자신들이 크레타의 중심 도시라고 자부하여 왔다. 그러므로 각 도시는 크레타에 대학이 선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도시에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는 인문·사회대학은 레티모스市, 이과대학과 의과대학은 이락클리온市, 공과대학은 하니아市, 대학 본부는 아테네에 둔다는 타협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후에 설립된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또하나의 그리스 대학교육 제도의 특징은 유럽의 전통을 따라 ‘대학교(Panepistimion)’라고 할 때에는 오직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신학대학, 법과대학, 문과(철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만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에 해당되는 고등교육 기관은 Polytechnion 이라 하고 상경대학, 정치학대학, 미술대학 등에 해당되는 고등교육 기관에는 Anotate schole(최고 학부)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에는 대학교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위에서 언급한 9개의 ‘대학교’ 이외에도 아테네 공과대학, 아테네 상경대학, 아테네 농과대학, 아테네 미술대학, 아테네 정치학대학, 피레우스 경영대학, 데살로니키 경영대학, 크리티 공과대학 등이 있다. 다만 음악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Odeion 이라 부르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정확히 말해서 학교라기보다 학원에 더 가깝다. Odeion 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 시험 같은 것은 없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분야의 선생에게 가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위와 같은 전통적 유럽식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어, 데살로니키 대학교의 경우에는 공과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최근 들어 예술대학에 미술학과 이외에도 음악학과와 연극학과가 설치되었다.

각 대학은 위에서 언급한 단과대학으로 분리되고 각 단과대학은 몇 개의 계열로 나뉘어지고 그중 몇몇 계열은 또 다시 몇 개의 과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어 아테네대학교 철학대학은 고전문학과, 중세 및 현대 그리스문학과, 언어학으로 구성된 어문학 계열, 사학과와 고고학으로 이루어진 역사-고고학 계열, 철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로 구성된 철학-교육학-심리학 계열과 영어영문학 계열, 불어불문학 계열, 독어독문학 계열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대학의 하위 계열-학과의 구조는 1981년 사회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취해진 개혁으로 아직도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다. 사회당 정권은 이런 조직상의 개혁과 아울러 학년제로 운영되던 것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기제로 바꿨으며 1983년부터 미국식의 대학원 제도도 도입했으나 아직 대학원만을 위한 강좌가 마련되지 않아 대학원의 학점 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83년 이전의 박사학위 제도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과 지도 교수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도제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도 교수는 대학 교수회의에서 자신의 학생의 대변인이 되어 박사학위를 추천하고 다른 교수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도와 준다. 이 과정에서 통과하면 박사학위가 주어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당사자인 학위 수여 후보자가 모든 교수들 앞에서 자신의 연구 업적을 발표하고 교수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구두 시험을 거쳐 학위에 대한 평점을 얻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미국식과 거의 비슷한 것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대학교육 과정은 8학기로 되어 있으나 공과대학, 농과대학, 치과 계열, 미술대학은 10학기, 의과대학은 12학기로 되어 있다. 교육 학년은 9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 해 8월말에 끝나며 제1학기는 9월 15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고 제2학기는 6월 15일 이전에 끝나야

한다. 각 학기당 법정 수업 일수는 2회의 시험을 포함하여 13주로 되어 있다. 여름 방학은 6월초부터 9월초까지이며 겨울 방학은 없으나 크리스마스 휴가가 12월 21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7일까지 보름 이상 있고 또 부활절 휴가가 약 2주 정도 된다. 시험은 매학기 마지막 2주 사이와 방학의 마지막 2주 사이 중에 학생 자신이 선택하여 볼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제3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보통 한 학생이 7~8개 정도의 강의를 들으므로 학생들은 보통 방학 전에 3~4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고 나머지는 방학 후에 본다.

대학교 교육은 국비로 시행되므로 등록금은 없고 각 과목에 사용되는 교과서나 교제도 국가에서 무료로 나누어 준다. 또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 식당에서는 지방 출신의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무료 점심 쿠폰이 제공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그리스 정부 장학생의 경우에는 학비와 교과서가 무료이나 자비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1년에 미화 700~800달러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 또 학생증을 제시하면 교통비는 물론 연극, 음악회, 박물관, 영화관 등의 입장료가 할인된다.

2. 大學入學 試驗制度

그리스의 전체적인 학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즉 국민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대학 과정 4~6년이다. 그리스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으며, 현 사회당 정권에 의해 1984년부터 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고등학교 입시 제도가 없어지고 추천으로 학생을 뽑게 되었다.

그리스의 대학 입시 제도는 꽤 복잡하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모두 4개의 분과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제5의 분과가 설치되었다 한다. 각 분과에는 국가가 결정한 공통 입시 과목들이 있어 입시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과의 공통 시험 과목들을 치루어야 한

다. 또 각 분과에는 공통 과목 중 하나가 기본 과목으로 지정받게 되는데 만약 한 입시생이 총점으로는 합격 점수를 얻었으나 그 분과의 기본 과목의 점수가 50/100 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판정받게 된다. 공통 과목 이외에 대학의 각 계열은 전공에 필요한 몇몇 과목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특수 과목이라 한다. 각 분과에 속하는 전공 계열과 공통 입시 과목 및 기본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밑줄 친 과목이 기본 과목임).

제 1 분과(공과-농과-이과 계열) : 작문, 물리, 화학, 수학

제 2 분과(의과-치과-간호학 계열) : 작문, 물리, 화학, 생물

제 3 분과(인문과학 계열) : 작문, 고전그리스어, 라틴어, 역사

제 4 분과(사회과학 계열) : 작문, 수학, 사회학, 역사

특수 과목은 각 학과의 전공의 특수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정해져 있어 각 입시생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가서 알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술대학에 가려는 경우에는 덧상이 특수 과목이 되고 전기과를 가려는 경우에는 전자기학이 특수 과목이 된다.

이러한 입시 제도는 근본적으로 '선지망 후시험' 제도의 형태를 갖게 된다. 대학 입학 시험은 국가에 의해 실시되며 입시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과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과목들과 자신이 원하는 계열이나 학과가 요구하는 특수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된다. 또 입시생들은 자신이 다니고 싶은 대학을 명시한다. 즉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 계열-학과를 먼저 지망하고 시험을 보는 셈이 된다. 국가는 시험 결과에 따라 각 분과-계열의 합격자들을 발표하게 되고 이 합격자들은 자신의 성적이 좋으면 자신이 원했던 대학에 들어 가게 되고,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 경쟁이 심하고 성적이 모자라면 지망한 계열-학과가 있는 다른 대학으로 가야만 한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이미 자신의 형제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학 합격권 안에 들기만 하면 그 대학에 입학할 권리가 주어진다. 또는 합격생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

이 합격한 대학으로 맞바꾸어 입학하기를 원하는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학은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테네대학과 데살로니키대학이다. 그러나 향토에 강해 자기의 고향에 설립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은 형편이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각 대학교가 요구하는 그리스어 시험을 통과한 후, 해당 단과대학에서 서류 전형을 거쳐 입학할 허락받게 된다. 이때 유럽 공동체 국가 출신 학생들과 그리스의 국가 장학생들은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체 교육비가 면제되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700~800 달러 정도의 수업료를 받는다.

3. 아테네大學校의 歷史와 特性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아테네대학은 1837년에 설립된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그리스는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1453년부터 받아 오다가 1821년 3월 21일을 기하여 독립을 선포하고 1829년까지의 기나긴 독립 전쟁을 치루게 된다. 드디어 1830년 런던 회담에서 그리스는 열강의 인준을 받아 바바리아 지방의 귀족인 '오톤'을 왕으로 맞아 그리스 왕국으로 터키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설립이었다. 1837년 아테네대학의 전신인 '오톤 그리스대학교'가 신학대학, 의과대학, 법과대학, 철학대학(문과대학)의 4개 단과대학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충분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없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법과대학은 오직 두 명의 교수만을 가지고 시작했으며 철학대학의 문학부에는 많은 외국인 교수가 채용되었으나 이들이 그리스어를 몰라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다만 의과대학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1904년에는 대학의 명칭을 '국립대학교'로 바꾸고 철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이과대학을 분리하여 5개 단과대학이 되었다. 1911년 '요아니스 톨몰리스'라는 부자의 기부금으로 대학의 재정적 문

제가 호전되었고 대학의 명칭도 '카포디스트리아콘대학교'로 바꾸었다. 현재 아테네대학의 정식 명칭인 '국립 카포스트리아콘 아테네대학교'는 1932년에 결정된 것이다. 지금도 아테네의 관광 명소의 하나로 아름다움과 위엄을 자랑하는 대학 본부 건물은 1889~1890년에 걸쳐 덴마크의 건축가 한센(Hansen)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1987년까지 아테네대학교는 하나의 캠퍼스를 갖지 못하고 각 단과대학별로 도심지의 몇몇 건물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소음 공해, 대기 오염 등의 문제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도심지의 교통 체증으로 말미암아 정부는 새로운 대학 캠퍼스를 마련해 모든 단과대학들을 아테네시의 교외로 옮겼다.

현재 아테네대학은 과도기의 몸살을 앓고 있다. 1974년의 민주화 회복 이후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던 대학 행정에 대한 학생과 소장 학자들의 민주화 요구가 계속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철학대학의 경우 7,000~8,000명의 학생에 교수는 불과 17~18명뿐이었다. 이렇게 부족한 교수 수자 때문에 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한 강좌의 수강 인원이 500~600명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 시설 역시 비좁아 각 강의실은 항상 만원이어서 서서 강의를 듣는 경우도 많았다. 시설 문제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교수진의 증원 문제는 교수들의 권위주의와 기득권에 대한 애착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 민주화를 추진·정착시킨 중도-보수 정당인 그리스 신민당 정권은 이러한 대학의 체질 개선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1981년 선거에서 사회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국민과 학생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학의 체제를 개혁해 나갔다. 사회당 정권은 1983년에 새로운 대학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그야말로 광범위한 대학의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교수회의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대학의 행정권을 교수 대표, 강사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대학원생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의결 기관으로 넘겼다. 교수의 임용 문제에도 개혁이 뒤따랐다. 그때까지 대학 교수가 되려면 교수회의의 만장일치를 얻어

야만 가능했다. 그래서 교수가 되려면 교수의 조카이거나 사위이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교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에 의하면 교수의 임용은 전체 교수 회의가 아니고 5명에서 30명 사이의 해당 학과 교수들만으로 구성된(또는 해당 학과의 교수가 5명이 못되는 경우 인접 학문 학과의 교수와 합쳐 이루어진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2/3의 찬성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 모든 교수와 강사들은 매년 실시되는 학생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교수의 수업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이 평가는 교수들의 승급 심사에 반영된다. 이러한 모든 개혁 조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당연하게도 기성 교수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개혁들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아테네대학의 교육 방법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모든 시험이 철저하게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시험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큰 주제에 대하여 소논문을 적어 내도록 되어 있다. 우선 학기초에 참고 문헌의 소개가 약 2~3주 계속되고, 시험 문제가 될 주제가 약 10여 개 주어진다. 이 주제들 중에 3~4개가 출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험 방법은 작문과 구두 시험의 두 가지 중 하나가 채택되는데 학생들이 정말로 두려워 하는 것은 구두 시험이다. 구두 시험이 있는 날이면 거의 하루 종일 교수는 학생들을 5~6명을 한 단위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는데 시험을 보는 학생이나 시험을 보게 하는 교수나 거의 탈진 상태가 된다. 또 필기 시험의 경우 꼼꼼하게 답안지 한 장 한장을 채점하는 교수를 보면 갑자기 그 선생이 존경스러워진다는 어느 학생의 말이 정말 실감이 난다. 이러한 시험에 대한 교수들의 책임감과 함께 절대로 결강이나 휴강을 하지 않는 아테네대학의 전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아테네대학에는 수업 거부라는 낱말은 있어

도 휴강이나 결강이라는 낱말은 없다. 아니 그러한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수상이 만나자고 해도 일단 수업 시간부터 제쳐 놓고 약속 시간을 정할 정도이다. 만약 교수가 건강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다른 선생이 그 시간을 대강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러운 것은 아테네대학의 도서관 제도이다. 우선 아테네대학에는 대학 중앙도서관이 없다. 각 과가 단위가 되어 관련 도서를 구입·관리하고 있다. 물론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이 학과 단위의 도서관은 우선 한 전문 분야의 모든 서적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의 효과가 매우 크다. 너무도 방대한 도서관 건물 안에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가졌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화된 도서관의 경우에는 책을 찾기도 쉽고, 새로 구입된 책에 대한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책의 분류와 관리 역시 큰 도서관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전문 사서의 도움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각 학과에는 도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서가 한 명씩 배치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전공 분야의 도서관인 만큼 대부분의 경우 교수 자신이나 조교, 학생들이 사서의 도움 없이도 쉽게 책을 찾아 볼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맞춰 필요한 도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구입하는 일 역시 이 전문 도서관 제도가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전문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같은 전공자들의 약속·토론의 장소로도 기능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류를 촉진하여 학문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또 자신의 전공 분야의 책을 매일 손쉽게 접촉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야에 정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